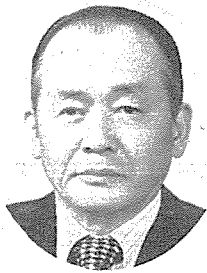


當農의 科學化 推進하여

— 技術指導事例를 求心點으로



閔寬植 會長

尊敬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새마을指導者와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由緒깊은 湖畔의 都市春川에서 成佐慶 科技處長官, 李敏載 江原大學校 總長, 金聖培 江原道知事와 여러분을 모시고 第5回全國 새마을 技術指導事例 發表會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전 바로 이자리에서 社會淨化運動決議大會를 가진바와같이 80年代 새時代 새歷史 創造를 爲한 轉機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26事態以後 惹起된 政局의 混亂과 社會秩序의 紊亂으로 그동안 國家存立이 危態롭게 되었으며 마이너스 經濟成長이라는 汚點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殺身輔國의 一念으로 國家危難에 對処한 全斗煥大統領의 卓越한 領導力으로 우리周邊의 不條理와 非理의 病幣를 剔抉하고 正直과 誠實로 社會正義를 俱現하여 民主福祉國家建設에 全國民의 和合된 努力이 傾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새마을運動의 求心點인 技術指導事例를 分析하고 그 效果를 評價하여 새로운 發展方向을 定立하려는 것은 時宜適切한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急變하는 周邊情勢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世界的인 共同關心事로 되어있는 에너지 波動은 우리가 克服解決해야할 宿題로 남아 있으며 對話도 協商도 拒否하고 오직 武力南侵만을 노리고 있는 好戰의集團의 作態는 우리의 安定을 沮害하는 代表的 要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當面課題들을 受容打開하여 國家를 保衛하고 國力을 伸張하기 爲해서는 國民모두의 叡知와 一致團合된 努力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科學技術人들은 創造的이고 能率的이며 合理的인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科學的인 思考涵養으로 새마을運動의 內實化와 健全한 發展을 이룰 수 있도록 先導的 役割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百萬 科學技術人의 總本山인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가 全國 9 個道에 새마을 技術奉仕團을 結成하고 새마을運動現場에 科學技術의 普及活動을 展開한것은 이러한 目的達成을 爲한 것입니다.

大學校와 實業學校를 비롯한 教育界에 從事하고 있는 科學技術人이 主軸

새마을運動 活性化해야

새時代의 새로운發展을 模索

이 되어 活動하고 있는 새마을技術奉仕團을 그동안 마을單位로 技術結緣指導, 新聞 및 放送을 통한 指導, 書信 및 教本을 통한 指導活動을 實施한바 있습니다.

지난 72年 創團以來 지금까지 全國에서 1萬9千餘회에 걸쳐 36萬餘名에게 現地出張 技術指導를 提供한 바 있으며 新聞 및 放送을 통하여 6千餘회를 指導하고 日常生活에 要緊한 生活科學 및 營農技術을 內容으로한 技術教本 9萬餘部를 發刊 새마을文庫用으로 無償 配付하였습니다.

그리고 短期營農技術學校를 開設運營하는 한편 地域特性化 事業을 爲한 研究事業을 展開하여 農漁村의 近代化를 促進하는데 寄與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이러한 努力으로 地域間의 特殊性과 立地的인 條件 그리고 住民들의 參與度 等에 따라서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大部分의 境遇 括目할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與件의 未洽으로 우리科學技術人들의 내고장 發展을 爲한 獻身的인 努力에 比하여 量的 또는 質的으로 아직 滿足할만한 指導活動을 못하고 있음은 매우 遺憾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새마을技術奉仕團이 지난 1年間 무엇을 어떻게 指導하였으며 그 效果가 어떤가를 科學技術人과 새마을指導者 여러분이 相互隔意없이 檢討하고 討議해서 앞으로 보다 效果的인 技術指導方案을 模索하려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眞摯한 發表와 討論으로 生活의 科學化는 勿論 營農의 科學化를 促進시킬수 있는 方案을 導出하여 새마을運動을 보다 活性化시키는 契機가 되어 주실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새마을技術奉仕團 活動을 積極支援하여 주신 政府當局과 言論關係者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 現場에서 手苦하시는 指導者 여러분과 江原道를 비롯한 새마을技術奉仕團 江原道團 關係者 여러분께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0年 8月 29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閔寬植